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위 말씀에 “오늘” 로 번역된 ‘세메론’ 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게 해줍니다.

또한 “동안에” 로 번역된 ‘아크리스’ 는 오늘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각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오늘” 이라 일컫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입니다.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선교지에서 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며 되돌릴 수 없고, 내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불확실한 시간이지만, 오늘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편지를 읽으실 때 오늘 네팔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팔 교회들이 복음으로 일어납니다!

러수아

<러수아 성탄예배>

러수아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잘 전하고 초청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함께하는 선생님께서 인형극을 준비하셔서 모두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 감사합니다.





<그레 마을 방문>

러수아 목사님으로부터 ‘그레(Grei)’ 지역에 있는 6명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각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상황을 들으며 동역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नेपाल은 여전히 산속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미개척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연이 재정 뿐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발라주 교회

리마목사님께서 교회 교육관에서 지내시다가 얼마전 땅을 구입해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3-4층 건축되면 여기서 호스텔 사역을 함께 하는 것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정으로는 1층 건축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축비가 잘 마련되어 네팔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말씀과 예배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터풀 교회

올해 완공을 목표로 교회 건축이 진행중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십시일반 건축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전 목사님들께 들었던 건축의 아름다운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박터풀교회 성도들도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완공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강릉선양교회 단기팀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강릉선양교회 단기팀 6명이 방문해서 함께 10일 동안 카트만두 교회들, 람자콧, 러수아, 포카라 선교지를 돌아보며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팔 방문이 처음인지라 열악한 환경과 추운 날씨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매일 아침 저녁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도리어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온 중학생들이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중고등부 학생들과 다녀왔던 일본 단기선교가 기억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선양교회 학생들도 삶에 믿음의 도전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자라가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네팔노동자들을 만나다

말레이시아에는 네팔리 노동자들이 공식 집계 60만, 비 공식 집계 120만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카트만두에서 말레이시아 네팔사역자를 만나 말레이시아 네팔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사정을 듣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가 개척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역자가 없어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신년 명절에 있는 말레이시아 네팔교회 연합 부흥회 때 동역하는 선생님들과 단기 사역으로 TEE 훈련을 하기로 하고 2월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원래 휴일이긴 명절인데 올해는 네팔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3일 밖에 휴가를 주지 않아 갑자기 연합 부흥회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 기간에 네팔 사람들은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타이밍이라 모임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쿠알라룸푸르, 수방자야, 조홀바루, 이포, 페낭 등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심방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사역자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각 교회들의 사정을 보고 네팔 노동자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사역

〈러수아〉

그동안 러수아 사역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서빠나 자매가 샤프로베시 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역을 그만두었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일부 아이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양측 얘기를 들어보니 각자 상황과 이유가 있어, 선생님들과 회의한 후 샤프로베시 교회와 베리야 교회(서빠나 자매

가 다니는 교회, 알아보니 이단교회 아님을 함께 돕고 사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샤프로베시 교회에 합당한 교사를 찾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람자콧>

람자콧 방과후 학교는 결석하는 학생이 없을 만큼 잘 진행되고 있으며, 두분의 선생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힌두 강성 지역이다 보니 저희들이 갈 때마다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에게 교회에서의 좋은 기억과 더불어 복음이 스며들어 스스로 예배 자리에 사모함으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리스 바이블 신학교

지방 각지에서 올라온 12명의 학생들로 Grace Bible School TEE 4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저와 선생님들께는 열심과 지혜를 주시며 이들은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겨지길 기도합니다.



러수아 대학생 모임

방학이 끝나고 집에 갔던 학생들이 돌아와 말씀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학생들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자넬 숙소를 마련해서 좀 더 밀도있게 말씀과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호스텔 사역을 계획중인데, 이를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말씀을 받는 지체 한명 한명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언젠가 열매가 맺혀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에는 아름다운 벚꽃이 피었겠지요.
아름다운 봄 계절에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하시길 기도하며 네팔에서 소식 전합니다.